

8

8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여름에 자돈이 기침을 하네요

더워서 사람도 힘들고 돼지도 힘든 계절이다. 질병 상황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올 여름을 잘 넘겨야 내년 성적이 좌우되는 만큼, 더워도 더 준비를 해야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요즘 돈사는 대부분 무창돈사로 개축하거나 고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많은 돈사들에서 환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계식 환기 방식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바람을 잘 제어하지 못함으로 해서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것이 여름철에 포유자돈과 이유자돈의 기침 문제이다. 더우니깐 호흡기 문제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보통의 현상인데, 자돈들의 기침이 줄지 않고 약을 써도 호전되지 않는다는 농장들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의 경우들은 환기 장치를 잘못 사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예들을 몇 가지 적어보려고 한다.

특히나 포유자돈과 이유 초기 자돈들은 셋바람에 매우 민감하다. 대부분의 환기 관련 서적에서 셋바람을 최소화하라고 적고 있다. 그럼 셋바람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돼지에게 효용이 없는 모든 바람을 셋바람이라고 정의한다. 즉, 돈사 내부에 환기를 시킨다 하더라도, 돼지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모든 바람을 셋바람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포유자돈의 경우, 미세한 바람(초속 0.15m 이상)도 자돈들에게 호흡기 문제와 설사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나 여름철에 포유자돈이 기침을 하는 돈사는 반드시 셋바람이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보통 작업자들이 긴 바지를 입고 일하기 때문에 포유자돈 높이에서의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몸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간단하게 농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담배 연기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연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면 자돈에서 문제가 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 포유자돈들이 기침을 하는 분만사에 들어가 보면 대개 설사증세도 많으며, 포유자돈들의 털이 길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들은 약품을 사용해도 치료 효과가 적은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대개는 창살형의 칸막이가 설치된 농장들에서 흔하게 증상을 보이게 된다.

〈사진 1〉을 보면 여러가지 힌트를 얻게 된다. 이 분만사도 창살형 칸막이를 가지고 있어서 여름과 겨울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 여름에는 각종 환기 휠들의 작동으로 인해서 자돈들이 설사와 호흡기 문제를 겪는다. 겨울의 경우



김 경 진 원장
돼지와 건강 수의그룹

칸막이가 다 터있기 때문에 보온을 위해 과도한 전력을 소비해야 한다. 그래서 칸막이를 판으로 막고 보온구역을 만들어 주니 매우 좋은 효과가 있었다. 흔히들 보온상자가 겨울에만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름철에도 많이 필요하다.

바람에 의한 호흡기 문제는 자돈사에서도 많이 겪는 문제이다. 여름철에 기침을 하는 자돈사를 들어가 보면 대개, 바람이 돼지에게 직접 닿는 농장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돈의 털이 매우 길며 기침과 설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항생제를 사용해도 기침이 줄어들지 않는 특징이 있다. 특히나 무창 돈사에서 음압식 환기를 하면서 입기구를 주름관으로 사용하고 입기 구멍을 아래로 뚫어 놓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매우 흔하다. 구멍을 아래로 뚫는 경우, 배기 웬 용량이 너무 크면 바람이 돼지에게까지 그대로 닿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환기를 점검할 수 있는 포그머신 등을 이용해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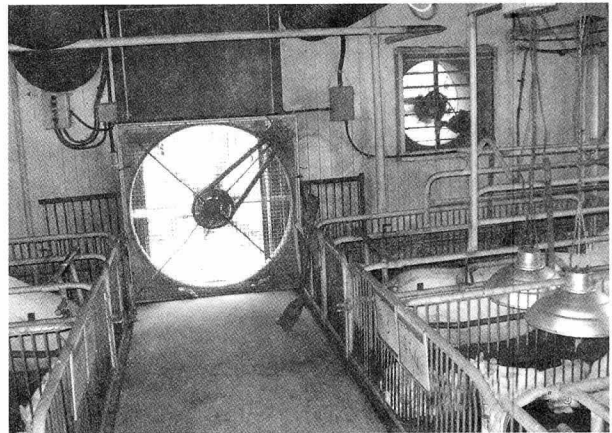
또한 중계웬을 많이 사용하는 돈사의 경우 자돈에게 바람이 닿게 되면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

〈사진 2〉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런 대형 웬이 돈사 내부에 존재할 때, 자돈은 바람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럼 호흡기 문제와 설사 문제가 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대개의 농장들에서 보이는 현상인데, 점점 더 많은 웬을 돈사에 설치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과환기 문제가 발생하고, 호흡기 질환은 더 증가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돼지에게 있어서 환기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돈사에서 냄새가 일정 정도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습도도 유지되며 돼지에게 쾌적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사람이 쾌적하다는 것이 항상 돼지에게 좋지는 않다.

문제는 이렇게 자돈들이 여름에 기침을 하면, 가을과 겨울에도 계속 호흡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돈들이 바람 때문에 기침을 하면 결국은 병원체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 이럴 경우, 질병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돈사에서 여름철에 호흡기 문제가 생긴다면, 가을 환절기가 오기 전에 전문 수의사에게 질병 점검과 환기 점검을 의뢰해 보는 것이 추천된다. **양돈**



〈사진 1〉 보온구역의 설정. 보온구역은 웬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 2〉 이런 대형 웬이 자돈사내 분만사에 있다면 여름철에 호흡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